

## 제35회 과학의날 기념식 이한동 국무총리 치사

(8쪽에 이어서)

적극 개발할 것입니다.

또한 기술혁신의 원천이 되는 기초과학을 우리 자력으로 튼튼히 발전시켜 나가는 일도 매우 중요합니다.

정부는 앞으로 5년 이내에 연구개발예산중 기초과학연구예산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넷째, 과학기술에 친숙한 사회풍토를 조성하고 국민과 함께 하는 과학기술문화시대를 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에는 국민들이 과학기술을 생활화하고 합리적이고 창의적인 과학정신이 일상생활 속에 뿌리내려야 합니다.

그리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과학기술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TV 등 대중매체의 과학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과학문화시설을 확충하는 등 과학문화 창달을 위한 투자를 대폭 늘려 나가겠습니다.

이번에 수도권에 건설하게 될 「국립과학관」도 교육과 놀이와 체험을 통해 국민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과학문화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다음달에 개막되는 월드컵이 국민적 축제 분위기 속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과학기술인 여러분 모두가 적극 성원해 주시고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기상정보의 제공, 생화학 및 방사능

테러대비 등 과학기술 관련사항에 대해서도 만반의 협조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치르게 되면 우리는 또 한번의 국운 융성을 맞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존경하는 과학기술인 여러분!

여러분은 과학한국을 열어나가고 계신 주역들이십니다. 여러분의 창조적 연구활동은 우리의 국가경쟁력을 실현하는 초석이 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 현장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노고와 희생에 온 국민의 이름으로 무한한 신뢰와 찬사를 보냅니다.

전국의 과학기술인 여러분들의 건승과 행운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 김시중 과총회장 기념사



존경하는 이한동 국무총리님, 그리고 채영복 과학기술부 장관님을 비롯한 귀빈과 과학기술인 여러분을 한 자리에 모시고 오늘 제35회 과학의 날 기념식을 갖게 된 것은, 모든 과학기술인의 경사이며 기쁨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과학기술이 모든 세계사를 다시 쓰게 하고,

IT산업이 21세기 마지막 날까지 세계의 선두자리를 지켜 나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인류의 먹거리와 인류가 소망하는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BT를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 올려야 할 것입니다. 미래산업의 총아로 일컫는 NT의 세계 선두자리를 기필코 차지하여야 할 것이며 에너지·항공우주·해양·환경분야의 첨단기술개발에도 모두의 역량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국민의 정부」가 추진해온 남북한 교류와 화해의 조류를 타고 북한 과학기술인들과 민족의 앞날을 융성할 공동 연구풍토가 조성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과학기술인들은, 과학의 날

과학기술이 풍요와 번영을 약속할 것이라는 신념아래, 21세기를 굳건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과학기술

# “행동하는 지성으로 거듭나자”

을 시작으로, 앞서 말씀드린 다짐들을 실천하고 촉구하기 위한 “과학기술 위기선언문”을 발표하고 모두가

인들이, 우리나라를 과학기술입국으로, 그리고 대망의 선진국으로 우뚝 서게 하겠다는 결의를 다지는 한편, 우리 민족의 미래를 밝고 희망차게 설계해 나가자고 약속하는, 우리 과학기술인들의 “단합의 장”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국민의 정부」수립 이후 IMF를 겪는 등 어려운 나라살림 속에서도, 과학기술관련 정부예산을 두배로 크게 늘려주시므로써, 과학기술이 지속적으로 발달하고 국가경제발전의 중심 축이 될 수 있도록 배려해 준 이한동 국무총리님과 정부에 대해 과학기술인 모두가 가슴 깊이 감사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전해 올리는 바입니다.

이와 같은 정부의 특단의 정책과 국민들의 과학기술에 대한 여망에 부응하기 위하여, 우리 모든 과학기술인들은 각오를 새롭게 하는 한편,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에 혼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우리 과학기술인들은 세계 최고의 기술과 품질을 자랑하는 우리의

동참하는 “100만 과학기술인 인터넷 서명운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모든 과학기술인들은 이 운동에 적극 동참하는 한편, 오늘날 한국의 과학기술 위기를 극복하는, 행동하는 지성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정부 당국은 물론, 온 국민은 우리 과학기술인들의 뼈를 깎는 절규에 아낌없는 격려와 응원의 박수를 보내주시기를 간절히 당부드립니다.

다시 한번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빛내주신 이한동 국무총리님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채영복 과학기술부 장관님을 중심으로 우리 과학기술인들이 한마음으로 뭉쳐서 동북아 과학기술 선진국으로 우뚝 서도록 열(熱)과 성(誠)을 다할 것을 다짐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오늘 이 자리에서 과학기술유공 훈·포장을 받으시고 제35회 대한민국 과학기술상을 수상하시는 여러분들께도 축하의 인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